



교섭속보

10호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지부 실무교섭 “역시나 입장 변화 없어” 9.1 파 / 업 / 전 / 야 / 제 / 총집결!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고대의료원지부 실무교섭의 결론은 역시 없었다. 노동부에서 성실히 교섭하라는 말이 무색하게 1차 교섭에 이어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사측의 교섭태도를 보아 파업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남은 길은 조합원의 힘으로 직접 승리의 타결안을 쟁취하는 것이다. 조기출근 선전전, 파업전야제, 파업까지 힘차게 결의해 사측에게 직원존중이 무엇인지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8/26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3차례 집중 교섭 주문
8/28 1차, 2차 실무교섭 - 안 제시 없음
8/30 3차 실무교섭 - 안 제시 없음
9/1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예정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열었다. 정부 쪽에서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와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창준 정책관은 "3개월째 12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의지를 갖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겠다"며 "지난번 11시간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보건의료노조 - 보건복지부 12차 노정교섭 진행 “시간 제한 없이 성실히 협의”

서 여러 가지 의료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교섭결과는 오전 9시경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관련 보도 모음

보건의료노조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한 뒤 주요 언론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투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취재,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BS “기재부, 국민 건강 위해 공간 열어야”
(08.28 9시뉴스 나순자 위원장 앵커 인터뷰)



KBS 의료진 ‘번아웃’ 더이상 감당 못해...의료 인력·공공병원 총원 절실 (08.28)



MBC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9월 2일 파업 (08.27)



YTN 보건의료노조 파업 가결...“협상 안 되면 9월 2일 돌입” (08.27)



JTBC ‘덕분에’ 주역들이 멈춘다...내달 2일 간호사 총파업 (08.27)



연합뉴스TV 보건의료노조 “9월 2일 파업 돌입...필수인력 남겨” (08.27)



경향신문

보건의료노조 “노·정 합의 불발 땀 내달 2일 총파업”

5만6000여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 대응 업무 등 차질 불가피
인력 확충 제한 방안 등 협의 난항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조합원 전체 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인력 확충 문제 등을 놓고 남은 기간 노조와 최대한 협의

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예산 문제 등과 결부돼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만6091명 가운데 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4만1191명이 파업

에 찬성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극도의 피로감과 열악한 노동환경,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정부 및 병원, 의료원 등과 각각 노동교섭을 진행해왔다. 이 중 의료기관 등과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 1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그사이 대정부협의마저 합의

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료진 5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3만6000명) 당시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교섭기간이 다텈 남긴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 5월 말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날 진행된 11차 노·정 교섭의 경우 자정을 넘겨 11시간에 달하는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교섭에서 노조는 의료 인력 증원 절실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

하며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간호사들의 교대제 근무시간 단축 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문제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정부는 전날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차이를 좁혔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협의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5면에 계속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